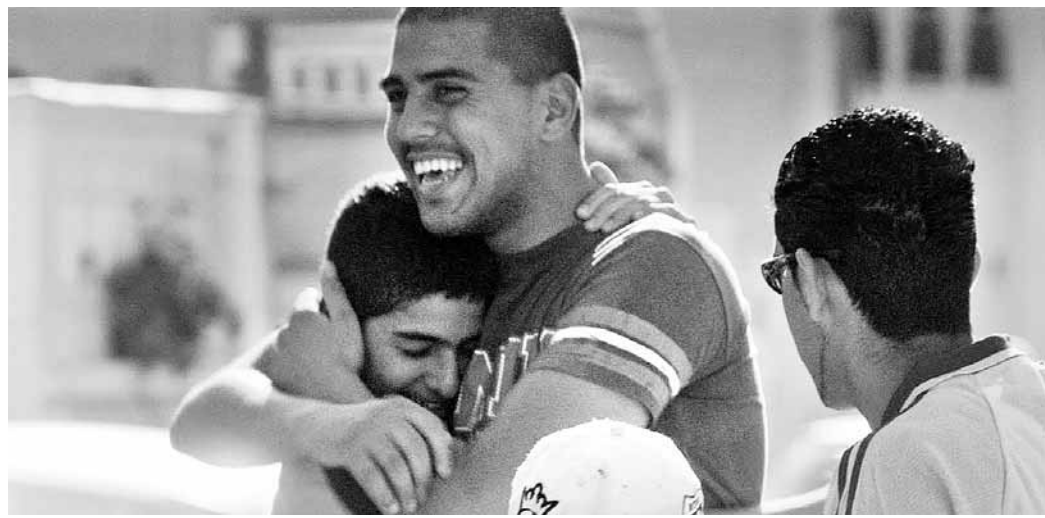


# 스크린에 비친 '투쟁의 땅' 중동의 삶

아시아문화전당 '씨네 뷰잉룸'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 18편  
6월24일까지 매일 1편씩 상영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자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등 중동지역 영화들을 소개하는 '씨네 뷰잉룸'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씨네 뷰잉룸'은 지역 및 주제에 따라 관련 영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즌형 상영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알바스 키아로스타미, 바흐만 고바디, 모흐센 마흐말바프 등 이란의 대표감독 8인의 작품을 상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6월 24일까지 오후 3시 ACC 라이브러리파크 블랙박스 1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들과 관련 다큐멘터리, 공연을 매일 1편씩 상영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극영화들은 중동 지역 간의 분쟁과 투쟁 속 역사와 현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중동 역사 연구자이자 고고학자인 T.E. 로렌스의 일대기를 아랍 독립운동과 함께 풀어낸 '아라비아의 로렌스',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만들어진 아프가니스탄 영화 '천상의 소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대립을 소시민의 일상을 통해 표현해낸 '오마르', '레몬 트리',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두 지역 출신 감독의 합작으로 풀어낸 작품인 '아자미' 등 총 18편을 상영한다.

ACC는 또 다큐멘터리 3편을 소개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지역적 문제와 체제의 문제점을 당시의 증언들을 통해 파헤친 '팔레스타인 점령의 적법성에 대한 보고서', 고(故)에드워드 사이드의 삶의 장소와 흔적들을 촬영한 '아웃 오브 플레이스-에드워드 사이드의 추억',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바렌보임과 에드워드 사이드가 창단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배경과 준비과정들을 보여준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등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저서 '오리엔탈리즘', '문화와 제국주의' 등을 통해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 방식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앞장서며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살았던 문학평론가다.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웃 오브 플레이스-에드워드 사이드의 추억'은 일본 다큐멘터리계의 거장인 고(故)사토 마코토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이밖에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60주년

콘서트',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협연한 '2016년 BBC프롬스' 실험 공연 영상도 함께 소개한다.

한편 블랙박스 2에서는 태극 영상작가 아라야 라잠레안숙의 컬렉션 '막간(幕間)'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일 무료로 상영된다(휴관일 제외).문의 062-601-4035.

이밖에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60주년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국의 전통 사자춤, 비보잉 퍼포먼스와 함께 그려낼 예정이다. 또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어송라이터 아니(Uhnee)의 무대 '숨, 그리고 힐링'도 사전공연으로 더해진다.

25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두 번째 공연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팝재즈밴드 크리시 앤 필드윈과 전통연희 무용수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펼쳐진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자유로운 표현을 갈망하는 이들의 무대는 배우 홍주혜의 해설로 더욱 풍성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21세기 포크소년단으로 불리며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어쿠스틱 듀오 그란디의 무대가 사전공연으로 펼쳐진다. 문의 062-601-4025.

이밖에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60주년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국의 전통 사자춤, 비보잉 퍼포먼스와 함께 그려낼 예정이다. 또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어송라이터 아니(Uhnee)의 무대 '숨, 그리고 힐링'도 사전공연으로 더해진다.

## 뮤페라·팝재즈...장르 장벽 파괴 24~25일 ACC 아트 트레일러



지난해 진행된 '아트 트레일러'의 모습.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오는 24일부터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2018 ACC 아트 트레일러'를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시도됐던 'ACC 아트 트레일러'는 다양한 공연 장르를 공간의 제한 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보여줄 문화예술 콘텐츠의 '에코판'이라고 할 수 있다.

'ACC 아트 트레일러'의 첫 공연은 24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공연은 연인들의 사랑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음악극 '퍼포먼스와 뮤페라의 만남, 판타지아'로 문을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726-0482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복합방수 (061)284-0485 방수 (061)683-0485 방수 (061)726-0482 방수 (061)795-0485

**광주 송정역·광주역·목포역**

역사내 **광고주모집**

광주 송정역

광주 송정역

목포역

광고 PREMIUM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후 이용객 급증

송정시장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이용객 증가추이 (단위: 명)

역명	2015년	2017년
광주송정역	3,998,000	6,908,000
목포역	1,773,000	2,271,000

공식대행사 **나코스(유)** 010-8822-5425 062-376-5420

## 비참한 시대를 짊어졌던 청년 윤동주

시산맥 여름호 자선친필 시고 조명



"짙막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단지 백의민족의 시각적 형상화에만 그친 것이 아닌 애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중략) 그 당시 시가 잘 써지는 것도 부끄러워했던 윤동주의 삶과 탄압적이었던 일제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그를 민중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내재적 근거를 시 '슬픈 족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영지훈 '슬픈 족속(族屬)'에 대한 시평)

지난 5월 문화재로 등록된 윤동주(1917~1945)의 친필원고는 현대 시문학사의 중요한 자료이자, 시인의 문학적 생애를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다.

계간 '시산맥'은 통권 34호(여름호·사진)에서도 '윤동주 시인 자선친필 시고'를 기획연재로 다뤘다. 시인의 삶과 작품을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명하는 의도다.

이밖에 계간지에는 시산맥작품상 후보작품 강재남 '일인칭 자기시지적 시집', 김건영 '비갑충원센터', 박춘석 '창문', 이병철 '플로어 스탠드', 이성렬 '루비콘강에 내리는 유성우'가 수록됐다. 또한 '시산맥이 찾아가는 시인'으로 오봉욱 시인의 신작시 '기억의 변증법'의 4편도 독자를 찾아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이강 시인은 시 '바람이 불어'에 대해 "바람이 부는데 나만은 '반석' 위에 발 딛고 있으며, 강물이 흐르는데 나는 '언덕' 위에 올라서 있다는, 조금쯤 앞으로 비켜나 있다는 자각은 현실의 비참을 나란하게 겪어내지 못함에 대한 불가피하고 형이상학적인 책임감을 지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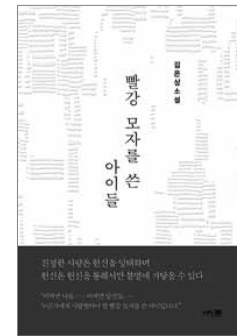
양진호 연구자는 '눈감고 간다'의 시를 "바다를 향한 소년의 '담 크고 순진한 응답'으로 해석한다.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배들을 위해 '달란트'인 시어를 곁게 깔아두었다는 것이다.

조대한 연구자와 차성환 시인은 각각 '또 다른 고향'과 '별해는 밤'에 대해 "고향은 백골과 함께 늙는 곳이고 또 다른 고향은 백골 몰래 가야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언덕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흙으로 덮는 일련의 행위들은 '나'의, 아름다운 '별'-'이름'-'되기'의 운동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간지에는 시산맥작품상 후보작품 강재남 '일인칭 자기시지적 시집', 김건영 '비갑충원센터', 박춘석 '창문', 이병철 '플로어 스탠드', 이성렬 '루비콘강에 내리는 유성우'가 수록됐다. 또한 '시산맥이 찾아가는 시인'으로 오봉욱 시인의 신작시 '기억의 변증법'의 4편도 독자를 찾아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폭력과 가난 이겨낸 한 가족의 이야기

김은상 소설 '빨강 모자를 쓴 아이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폭력과 가난을 이겨낸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휴먼다큐 소설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담양 출신 김은상 시인이 펴낸 '빨강 모자'는 자신의 불우했던 가족사를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하는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은 일은 어머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들의 일부가 글로 작성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잠속했던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속의 최소화를 통해 폭력의 개인성을 지닐 수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 기획했던 에세이에서 휴먼다큐 소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였다. 삶의 잔혹에 대한 인간의 방어기제가 겨우

문학할 수 있었다는 푸념도 했다."

작품은 마지막까지 폭력과 가난에 노출된 한 가족이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회생해 가는가 보여준다. 소설 속 '빨강 모자'는 주인공이 차마 꺼내지 못한 기억의 상징이다. 폭력과 가난에 시달렸던 어머니가 여섯 살배기 어린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 사과의 의미로 사주었던 선물이다. '빨강 모자'는 상처, 죄의식, 구원 등을 상징하며 작품 전체를 이끄는 알레고리로 작용한다.

작가는 자칫 신화조로 흐를 수 있었던 이야기를 문학적 가치를 발휘해 아버지 대 어머니, 2인 화법으로 구사한다. 낯설고 씨실을 엮듯 어머니와 아버지의 독백을 절묘하게 교차함으로써 이야기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방황의 끝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 사랑해라!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은 내 삶을 빛 한가운데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2009년 '실천문학' 사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2014년 문화예술위 아르고 문학 창작자금을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

## 내게 맞춘 문화정보 '힐링더힐링룸' 페이지 개설

광주문화재단은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문화상당소 '힐링더힐링룸' 페이지를 개설했다.

문화생활 관심도, 성향, 선호도 등을 테스트해 그 결과를 ▲문화생활이 아직 낯선 입문단계인 문화수험생 ▲혼자만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

호류형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하는 문화갈이형 ▲문화공감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문화예술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문화상당소 힐링더힐링룸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82. /박성천기자 skypark@